

자연 속으로(Into the Wild)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 존 웨인 공향 예술 프로그램에서 2023년 8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데니스 캐리, 폴 가르시아, 크리스 호, 윌리엄 크나우어, 도널드 크로티, 니키타 영 등 6명의 오렌지 카운티 작가들이 참여하는 회화 및 사진 합동 전시회인 자연 속으로(Into the Wild)를 선보입니다.

각 작가는 렌즈와 붓 터치를 통해 대자연이 연출하는 고요한 아름다움과 고독의 순간을 포착하여 관람객들이 다른 시각으로 대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트레일헤드를 거니는 가족, 도널드 크로티, 수채 물감, 2022년 작

화가인 도널드 크로티와 윌리엄 크나우어는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평온함을 묘사합니다. 크로티의 수채화는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가며 매혹적인 배경을 선보입니다. 크나우어의 작품 세계는 인간의 발길이 끊긴 울창한 언덕에 완벽하게 녹아든 건축물의 경이로움으로 풍요로운 유럽 여행지의 평온함과 화려함을 담아냅니다.



러시아 농경의 삶, 윌리엄 크나우어, 캔버스 및 아크릴, 2021 년 작

데니스 캐리가 담아내는 연안의 모습은 고요한 일탈을 선사하며 관람객들이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먼 바다를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폴 가르시아는 독창적인 앵글을 통해 삼나무 가지 사이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관람객들이 숲 위를 따라 들여다 보도록 유도합니다. 이 두 작가는 모두 관람객들을 평온한 순간으로 안내합니다.



요사키, 니키타 영, 유화 물감, 2022 년 작

또한, 이 전시회에서는 동식물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아름답고 섬세한 니키타 영의 유화 작품들도 선보입니다. 그의 친근한 작품들은 피사체에 대해 느끼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과 친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크리스 호의 중국 전통 수묵 작품에는 야생 동물을 향한 시대를 초월한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호의 작품, *금붕어*는 선명한 붉은색과 익살스러운 점박이 꼬리를 한 붕어 세 마리가 어딘지 모호한 녹푸른 공간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묘사하여 관람객들이 붕어의 비늘이 연출하는 아름다움과 패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러한 세세한 디테일 등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감상해보십시오.



금붕어, 크리스 호, 중국 물감 및 붓, 2021 년 작

전체 작품 컬렉션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회화 작품들은 터미널 A, B, C의 보안 검색대 근처 상부 출발층과 2 번과 4 번 수하물 컨베이어 라인이 있는 아래쪽 도착층에 걸쳐 전시됩니다.

존 웨인 공항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ocair.com/terminal/artexhibits 에서 확인하십시오.